

[사회]

보문학속 사립外高 설립 나섰다

‘보문고→외국어고 전환’ 설립 제안서 제출 광주시교육청, 내달 20일까지 선정여부 결정

보문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보문학속이 광주지역 첫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나섰다.

보문학속 관계자는 1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공모와 관련, 이날 설립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정형래 한국사립중·고등학교협회 인협외회 광주시회장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큰 뜻을 두고 사립 외고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보문학속은 학교 신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보문고를 외국어고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일어·영어과’, ‘러시아·영어과’, ‘중국어·영어과’, ‘아랍어·영어과’ 등

4개 학과를 운영하고, 1학년당 35명, 학년별로 8개 학급씩 총 24학급에 84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비는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반 고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문고는 지난 1975년 개교해 현재 3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내에 남·여학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갖춰져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 외국어고 설립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문학속이 제출한 설립 제안서와 운영 의지, 재정투자 계획, 투자 규모 등을 검토한 뒤 오는 7월20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선정이 확정되면, 지난 3월 28일 광주시와 체결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

한 기본 협정’ 및 ‘지역인재양성 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기숙사 등 시설비 지원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설립한 학교법인 죽호학원(금호고·중앙여고·금과공고·중앙중)은 당초 금호고와 중앙여고를 묶어 사립 외국어고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2008년 대학입시부터 학교 생활기록부가 50% 이상 반영되는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불리해 장점이 없고 ▲금호고 및 중앙여고 동문의 적극적인 반대여에 예상되며 ▲기숙사 신설 등 개교 초기에 120여원이 드는 데다 매년 20여원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해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는 사립 19개, 공립 11개 등 30개가 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는 광주와 울산에만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다. /황태기자 hwangtae@



1점이라도 더...모의수능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1일 광주와 전남지역 고교에서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정답을 확정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3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교권확보’ 교사 스스로 노력해야

광주방문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권 침해’ 교사 책임론 제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부모 및 학생의 교권 침해와 관련, ‘교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교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6년 전국 학교도서관대회’ 참석에 앞서 1일 광

주시교육청을 방문,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는 전문성과 실력을 높이고, 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돌봐야 학생과 신뢰감이 쌓이고 참된 교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교사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근무성적 평정 및 교원연수·양성제도 개선, 수업시간 감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 중 발



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학교교육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으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기존의 강경대응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여수산단 정전사고 왜 잦나?

한전 “일부공장 변압기·비상발전기 없어” 업체 “직렬 전기공급 체계 병렬로 바뀌야”

국내 최대의 화력단지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정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산단 내 불완전 전력 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을 받고 있는 광주전력관리처는 발전 설비의 문제가 아닌 공장 내 송·배전 선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유 때문에 ‘보호계전 시스템’(정전사고를 감지, 주파수 방지로 한전과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을 갖추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구형 ‘Pilot Wire’ 방식을 최신형인 PCM(Pulse 신호) 방식으로 바꾸는데는 5억~6억 원이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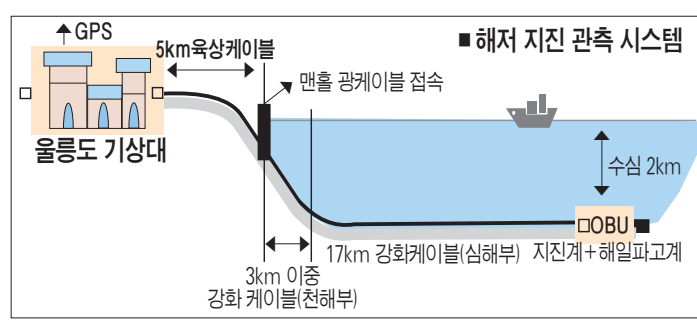
한전 측은 또 공장마다 자체 변압기(100kW 2천만원)를 설치하지 않고, 중요 시설에 상시 비상발전기를 갖추지 않고 있어 정전 사고 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업체들은 “2001년부터 산단 내 한전 소속인 여수 화력발

전소와 호남 화력발전소가 한전에서 분리되면서 정전사고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한전이 두 개의 자회사로 발전소를 분리하면서 전력 공급 체계가 불안정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업체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전의 전기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렬식(1회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 시스템 대신, 병렬식(2개의 회선에 상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1 사용자 1 선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전에 대비, 공장으로부터 전력 공급선을 1개에서 2개로 늘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한전에 수차해 시스템 전환을 요구했지만, 한전이 내구상의 문제를 들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울릉도 남쪽 수심 2km 지점에 국내 첫 해저 지진계

기상청, 본격 해양조사
동해에 국내 처음으로 해저 지진계가 설치된다.
기상청은 케이아이티밸리(대표 장미호·www.kitvalley.com)와 해저 지진계 구매·설치사업의 계약(22억7천만원)을 체결하고 해양조사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해저 지진계는 울릉도 남쪽 20km, 수심 2천m 지점에 압력식 파고계와 함께 울 연밭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또 울릉도 내륙 지하에 시추공 지진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진계는 울릉도 기상대까지 25km 길이의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지진파 및 파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도면>
전국에는 현재 110개의 육상 지진 관측소 및 지진 가속도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시간 해저 지진계 설치의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기상청은 1905년 인천관측소에 처음으로 기계식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관측을 시작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5mm 안팎 비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났다.

6월 2일
(음 5월 7일)
◇전국날씨

광주	흐린뒤 맑	19~29℃
대전	흐린뒤 맑	17~26℃
대구	흐린뒤 맑	18~25℃
부산	흐린뒤 맑	16~25℃
서울	흐린뒤 맑	18~30℃
인천	흐린뒤 맑	16~26℃
전주	흐린뒤 맑	16~27℃
제주	흐린뒤 맑	17~29℃
울릉도	흐린뒤 맑	16~26℃
독도	흐린뒤 맑	17~29℃
구름조금	16~29℃	
구름조금	17~2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6:14 썰물 < 11:54
여수 밀물 < 00:49 썰물 < 07:08
12:51 썰물 < 19:03

▲해돋이 05:19 ▲해질 19:42 ▲달돋이 10:36 ▲달질 00:07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날씨						
최저/최고	18/30	17/27	17/25	18/25	16/27	17/26

30대이상 셋중 1명꼴 심·뇌혈관 질환 ‘비상’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세이상 3명중 1명 ‘비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6월 전국의 1만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상 연령층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비만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중증 질환자 많아=20세 이상 조사 대상자 가운데 비만 유병률이 31.8%나 됐다. 50~59세의 경우 그 비율이 42.5%에 달했다. 3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27.9%였으며 남성(30.2%)이 여성(2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8.1%의 유병률을 보였다. 40대(7%)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8.2%였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0%를 넘어섰다. 비혈은 남성(2.2%)보다 여성(9.5%)에서 많이 발생했다.

◇쌀·배추김치·우유 섭취해=국민 1인당 1일 평균 1천291.8g의 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 중 동물성 식품 비율이 22.3%로 1969년 국민영양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다 섭취 식품은 흰쌀로 205.7g이었고, ▲배추김치(90.3g) ▲

■당뇨병 유병률

연령별 유병률(%)	성별 유병률(%)
20대 0.5	남 8.0
30대 1.2	여 7.2
40대 7.0	
50대 12.3	
60대 15.6	
70대 16.2	

우유(66.5g) ▲팥주(42.3g) ▲소주(28.9g) ▲돼지고기(25.9g) ▲달걀(25.3g) 등의 순이었다. 환율은 1998년의 246.1g, 2001년의 215.9g에 비해 섭취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섭취 에너지량은 2천19.2kcal로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 권장 섭취량의 76.3%에 그쳤다. 특히 13~19세 청소년은 권장 섭취량의 55.6%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운동 실천율 15.24%=조사 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46.5%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다.
소주를 7잔 이상 마시는 술자리가 1주일 1번 이상 있는 고 위험 음주군은 남성이 40.4%, 여성이 8.2%로 나타났다. 1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15.24%에 그쳤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집어린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공사시 시행을 위하여 세심한 입찰서요?』
『예산·비용절감』
『시공의 편리성』

우려점 극복의 특성

- 국내 최초 개발된 신개념 공법
- 시공방법 간단·효율적
- 시공시간 단축
- 비용 절감

우려점 극복의 특성

- 시공방법 간단·효율적
- 시공시간 단축
- 비용 절감

『공사시 시행을 위하여 세심한 입찰서요?』
『예산·비용절감』
『시공의 편리성』

재일모직 outlet 판매원 사거리

재일모직 본사 직영상품만 취급 60~40% 할인
파자점 1점 가격으로 2점 혜택

『공사시 시행을 위하여 세심한 입찰서요?』
『예산·비용절감』
『시공의 편리성』